

을해년본(乙亥年本)의 「을사정난기(乙巳定難記)」는 현재 발견되지 않은 유일본(唯一本)이며, 「영양일기(永陽日記)」 등 충제(沖齋)의 일기는 임난(壬亂)이전의 사료(史料)이며,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근사록(近思錄)」 등 10여 종의 간본(刊本)은 대다수가 내사본(內賜本)으로 서지학연구(書誌學研究)에 귀중한 자료이다. 보물 제 901호로 지정된 고문서(古文書) 중(中), 영락갑오친시방(永樂甲午親試榜)(1414)은 현재 발견된 방목(榜目)으로는 가장 초기의 것이며, 유서(諭書)·교서(敎書)·유지(有旨)·교지(敎旨)(첩(牒)) 등은 주로 중종년간(中宗年間)에 충제(沖齋)에게 발급한 문서(文書)로서 조선전기(朝鮮前期) 정치(政治)·인사행정(人事行政)·관제연구(官制研究)에, 분재기(分財記)·명문(明文)·소지(所志)·호적단자(戶籍單子) 등은 경제(經濟)·사회(社會)·가족제도연구(家族制度研究)에, 연산군일기세초도(燕山君日記洗草圖)·산릉도감제명록(山陵都監題名錄) 등은 계획연구(契會研究)에, 각각 귀중한 자료들이다. 보물902호로 지정된 유묵(遺墨)은 조선시대명필(朝鮮四大名筆)의 한 분인 자암(自庵) 김구(金鉉)의 초서족자(草書簇子)를 비롯하여 퇴계이황(退溪李滉)의 서첩(書帖), 진서(篆書)의 대가 미수허목(眉叟許穆)의 미수전(眉叟篆), 명(明) 초기(初期)의 초서(草書)의 대가(大家) 장필(張弼)의 진묵(眞墨), 조선전기(朝鮮前期) 명현(名賢)들의 필적(筆跡)을 모은 암장고적(巖藏古蹟)·선조수적(先祖手蹟) 등으로서, 서예사연구(書藝史研究)에 귀중한 자료들이거니와, 선조수적(先祖手蹟)·암장고적(巖藏古蹟) 등은 명현(名賢)의 필적(筆跡)으로서 그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충제(沖齋) 및 그의 자제들의 교유(交遊)와 당시 사대부(士大夫)들의 시문(時文)과 생활상(生活相)도 아울러 살필 수 있는 자료들이다.

충제종손가소장전적(沖齋宗孫家所藏典籍)은 사가소장(私家家所)으로서 그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質的)인 면에서나 매우 우수한 것으로 단편적으로 일부 발표(發表)된 바가 있고, 지정조사보고서(指定調查報告書)도 나온 바가 있거니와, 필자(筆者)는 1986년도(年度) 지정조사시(指定調查時)에 직접 조사하고 보고서(報告書)를 작성(作成)한 바 있는데, 당시 지정에 필요한 극히 기본적(基本的)인 사항만 기술하여 다소 검토 보완이 요구되므로 이번 기회에 전적(典籍)·고문서(古文書)·서예(書藝) 등 이미 지정(指定)된 광의(廣義)의 전적문화재(典籍文化財)를 개괄적(概括的)으로 살펴보게 된 것이다.

II. 충제(沖齋)의 생애(生涯)

충제(沖齋) 권벌(權撥)은 자(子)는 중허(仲虛), 號는 충제(沖齋) 또는 흰정(萱亭), 본관(本貫)은 안동(安東), 호군(護軍) 곤(琨)의 손자, 진사(進士) 사(士)의 제이자(第二子). 성종(成宗)9年(1478)에 안동(安東) 도촌리(道村里)에서 출생하여 명종(明宗)3年(1548) 삭주(朔州) 유배지(流配地)에서 세상을 마치니 향년(享年)이 71세이다.

연산(燕山)2年(1496) 19세 때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合格)하고 중종(中宗)2年(1507) 문과별시(文科別試)의 병과(丙科)에 급제(及第)하여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에 보임(補任)되고, 그해 12월(月)에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이 되어 봉교(奉敎)·대교(待敎) 등을 지내고 이어 승정원주서(承政院主書)가 되었는데 3년간(年間) 사관(史官)으로 봉직(奉職)하였다. 이때 사료(史料)를 누설한 이극돈(李克墩)을 추죄(追罪)할 것을 논계(論啓)하고 무오사화(戊午史禍)에 피죄(被罪)된 김종직(金宗直) 등의 신원(伸冤)을 청하였다. 중종(中宗) 4年(1509)에는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편수(編修)에 참여하였고, 이듬해 교리(校理)·정언(正言) 등을 지냈다. 중종(中宗)7年(1512)에는 일본(日本)의 청화(請和)

를 허락하지 말라고 계청(啓請)하고, 또 소릉(昭陵)(문종비(文宗妃))의 추복(追復) 등을 상소(上疏)하여 윤허(允許)를 받았다. 중종(中宗)13年(1518)좌승지(左承旨)에 올라 경연(經筵)에서 경서(經書)와 「근사록(近思錄)」 등을 강의(講義)하고, 노산군(魯山君)(단종(端宗))·연산군(燕山君)의 입후(立後)를 건의(建議)하는 한편, 조광조(趙光祖) 등과 노릉(魯陵)((단종릉(端宗陵))의 수리를 주청(奏請)하여 시행케 하였다. 중종(中宗)14年(1519)예조참판(禮曹參判)이 되고 이어 삼척부사(三陟府使)로 나갔다. 당시 신진사류(新進士類)들의 논의(論議)가 너무 급진적(急進的)이어서 훈구파(勳舊派)와의 불화가 심각하였다. 충제(冲齋)는 조광조(趙光祖) 등과 이의 조정에 나섰으나 신진사류(新進士類)가 듣지 않으므로 외직(外職)을 자청했던 것이다. 재임시(在任時) 사창(社倉)을 설치하는 등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그해 11월에 이른바 을묘사화(乙卯士禍)가 일어나자 피나(被拿)되어와서 바로 파직되고 그 뒤 15年 동안 전리(田里)에 퇴거(退居)하였다. 중종(中宗) 28年(1533) 밀양부사(密陽府使)로 복직(復職)되고, 한성좌윤(漢城左尹) 등을 거쳐 중종(中宗)33年(1538)에는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나갔다가 이어 한성판윤(漢城判尹)에 승진되고 이듬해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서 중계주청사(宗系奏請使)로 명(明)에 다녀왔는데, 그 공으로 토지(土地)와 노비(奴婢)를 하사(下賜)받았다. 이어 예조판서(禮曹判書)·세자좌우빈객(世子左右賓客)·좌참찬(左參贊) 등을 지냈다.

중종(中宗)39年(1544)에는 「주자대전(朱子大全)」을 고교(考校)하였다. 이해 중종(中宗)이 승하하자 성세창(成世昌)·신광한(申光漢) 등과 중종행장찬술청당상(中宗行狀撰述廳堂上)이 되고 빈전도감(殯殿都監)이 되었다. 인종원년(仁宗元年)(1545)에는 중종(中宗)의 묘호(廟號)를 헌의(獻議)하여 시행케 하였고, 경연(經筵)에서 「서경(書經)」을 진강(進講)하는 한편, 을묘사화(乙卯士禍)때 피화(被禍)된 조광조(趙光祖) 등의 신원(伸冤)을 청하였다. 이어 우찬성겸판의금부사(右贊成兼判義禁府事)에 승진되었다. 그해 7월 인종(仁宗)이 승하하고 명종(明宗)이 즉위하자, 원상(院相)이 되어 기무(機務)를 참단(參斷)하였다. 당시 윤원형(尹元衡)·정순봉(鄭順朋) 등의 언서조작사건(諺書造作事件)으로 재신(宰臣)들과 함께 충순당(忠順堂)에 입대(入對)하였는데, 충제(冲齋)는

“초정(初政)에 인심(人心)을 얻도록 힘쓰고 대공지정(大公至正)하게 처리해야 합니다.”라고 진언(進言)하여, 윤임(尹任)을 신구(伸救)하였다. 이어 정순봉(鄭順朋) 등이 윤임(尹任)·유인숙(柳仁淑) 등 삼대신(三大臣)을 처형하고 조신(朝臣)들을 일망타진(一網打盡)하려는 음모가 있음을 우분(憂憤)에 겨워 예궐독계(詣闕獨啓)하여 삼대신(三大臣)을 신구(伸救)하였다. 이 계사(啓辭)로 인해 원상(院相)의 직(職)에서 갈리었고, 윤임(尹任) 등 삼대신(三大臣)이 사사(賜死)되자 따라서 삭탈관직(削奪官職)되었다. 소윤(小尹)들이 윤임(尹任)등을 사사(賜死)하고나서 충순당입대(忠順堂入對) 재신(宰臣)들을 록훈(錄勳)할 적에 충제(冲齋)도 위사공신(衛社功臣)에 들었으나 정순봉(鄭順朋)의 계청(啓請)으로 삭제(削除)되었다.

명종(明宗)2年(1574) 양재역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에 연루되어 삭주(朔州)로 유배(流配)되었다가, 이듬해 배소(配所)에서 세상을 마쳤다. 선조(宣祖) 즉위년(1576)에 복관(復官)되고, 이듬해 좌의정(左議政)에 추증(追贈) 되었으며, 선조(宣祖)4年(1571)에 충정(忠定)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선조(宣祖)24年(1591)광국원종공신(光國願從功臣) 1등에 책록(策錄)되고 영의정(領議政)에 증직(贈職)되었다. 안동(安東)의 삼계서원(三溪書院)에 제형(祭亨)되었다.

저서(著書)로는 「충제일기(冲齋日記)」와 시문집(詩文集)을 모은 「충제집(冲齋集)」

이 전한다.

충제(冲齋)가 활동(活動)하던 시기인 15세기 후반(後半)에서 16세기 전반(前半)은 그야말로 사화(士(史)禍)와 정치변혁(政治變革)의 연속(連續)이었으니, 무오사화(戊午史禍)(1498), 갑자사화(甲子史禍)(1504), 중종반정(中宗反正)(1506), 이과옥사(李穎獄事)(1507), 을묘사화(乙卯士禍)(1519), 을사사화(乙巳士禍)(1545) 등 큰 사건(事件)만도 6건(件)이 된다. 이때에 관료(官僚)로서 학자(學者)로서 그 명절(名節)을 지키며 보신(保身)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충제(冲齋)는 40년간 내외(內外)의 요직(要職)을 두루 거치면서 위국진충(爲國盡忠)한 학자관료(學者官僚)였다. 무오(戊午)·갑자사화(甲子使禍)때 피화(被禍)된 제인(諸人)을 친구(伸救)하고 그때까지도 금기사항(禁忌事項)으로 있던 소능(昭陵)·노능(魯陵)의 추복(追復) 또는 수리(修理)를 건의하여 시행케 했는가하면, 을묘사화(乙卯士禍) 때는 자신도 을묘당인(乙卯黨人)으로 몰려 파직되어 15년간 야인생활(野人生活)을 하기도 하였으나, 복직된 뒤에는 조광조(趙光祖) 등의 신원(伸冤)에 앞장섰고, 을묘사화(乙卯士禍) 때에는 문정왕후(文定王后)를 배경으로 서슬이 시퍼런 소윤일파(小尹一派)의 위세(威勢)에도 불구하고 윤임(尹任)·유인숙(柳仁淑) 등 삼대신(三大臣)을 적극 친구(伸救)하는 등 국가를 위하고 사신(私身)을 불보지 않은 이른바 사직지신(社稷之臣)이었다. 송인수(宋麟壽)는 당대의 인물(人物)을 논(論)하면서 ‘재상중의 재상이다’라고 극찬하였고, 사론(史論)에서는 ‘오늘날 조정에서 권모(權某) 한 사람뿐이다’라고 찬양하고 있다.

충제(冲齋)는 충절(忠節)뿐만아니라. 경사(經史)에도 밝았다. 사관(史官)으로서 사초(史草)를 기록(記錄)하여 한원일기(翰苑日記), 당후일기(堂后日記), 승선시일기(承宣時日記) 등과 같은 유명한 「충제일기(冲齋日記)」를 남겼고, 「주자대전(朱子大全)」을 고교(考校)하고, 「춘추호씨전(春秋湖氏傳)」의 답의(割義) 등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경연(經筵)에서 경사(經史) 및 「근사록(近思錄)」 등의 책을 항상 소매 속에 넣고 다녔는데, 경회루(慶會樓) 어사연(御賜宴)에서 빠뜨린 「근사록(近思錄)」을 중종(中宗)이 주인(主人)인 충제(冲齋)에게 돌려주도록 한 사실은 특히 유명한 일로 오늘날까지 성사(盛事)로 전승된다. 충제(冲齋)는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주자대전(朱子大全)」 등 10여종의 서적(書籍)을 선사(宣賜)받았으며, 「예기집설(禮記集說)」을 현토(懸吐)·고교(考校)한 바도 있다.

Ⅲ. 지정(指定)된 전적(典籍)문화재(文化財)의 개괄(概括)

1. 충제일기(冲齋日記) 보물(寶物)261號

저자(著者) : 권벌(權撥).

연대(年代) : 중종(中宗)2(1507)~중종(中宗)13(1518). 수량(數量) : 6책

중종(中宗)때의 학자(學者)이며 명신(名臣)이었던 권벌(權撥)의 일기로서, 한원일기(翰苑日記) 2책, 당후일기(堂后日記) 1책, 승선시일기(承宣時日記) 2책, 신창영추단일기(新昌令推斷日記) 1책, 총 6책이다. 책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원일기(翰苑日記) : 2책. (34장, 78장) 27.8×19cm, 2.8×17.1cm. 선장(線裝).

중종(中宗)2년 정묘(丁卯)(1507) 12월(月)부터 기사(己巳)(1509) 9월(月)까지의 일기(日記)로서, 충제(冲齋)가 한림원(翰林院) 즉 예문관(藝文館)의 검열(檢閱)·대교(待教) 등

사관(史官)으로 재직시(在職時) 기록(記錄)한 일기(日記)이다.

2) 당후일기(堂後日記) : 1책(8장) 27.9cm×19cm. 선장(線裝).

중종(中宗)5年(1510)3월(月)1일(日)부터 3월(月)30일(日)까지의 일기(日記)로서, 충제(沖齋)가 승정원주서(承政院注書)로 재직시(在職時) 기록한 일기(日記)이다. 당후(堂後)는 승정원(承政院)에서 주서(注書)가 거쳐하는 방으로 당후관(堂後官)은 주서(注書)의 별칭이 되었다. 「충제집(沖齋集)」에는 중종(中宗)4年(1509) 1월(月) 1일(日)부터 기록하고 있다.

3) 승선시일기(承宣時日記) : 2책. 29×18.8cm. 선장(線裝).

중종(中宗)13年(1518) 5월(月) 15일(日)부터 11월(月) 6일(日)까지의 일기(一己)(중간에 결기(缺記)가 있음)로서 충제(沖齋)가 승지(承旨)로 재직시(在職時) 기록(記錄)한 것이다.

4) 신창영추단일기(新昌令推斷日記) : 1책(267장) 27.8×21.2cm. 선장(線裝).

중종(中宗)4年(1509) 신창영혼(新昌令訶)의 옥사(獄事)를 추단(推斷) 즉 심문 처단하는데 관한 일기(日記)이다. 중종(中宗)4年(1509) 10월(月)에 신창영혼(新昌令訶)이 박영문(朴永文)과 모역(謀逆)한다는 상산영말손(常山令末孫)의 고변(告變)으로 체포(逮捕)되어 국문(鞫問)을 받았는데, 당시 충제(沖齋)는 주서(注書)로서 왕명(王命)을 받아 신창영혼(新昌令訶)의 집에 가서 문서(文書)를 수색(搜索)하였고, 추국(推鞠) 때에는 사관(史官)으로서 참여하였다. 신창영(新昌令) 추문(推問)에 관한 사실은 「중종실록(中宗實錄)」에도 수록(收錄)되었거니와, 이 추단일기(推斷日記)는 충제(沖齋)가 사관(史官)으로서 현장에 참여하여 목도(目睹)한 사실을 적은 것인만큼 사료적(史料的)인 가치가 특히 높다.

이 4건(件)의 일기(日記)는 당시 조정에서 일어난 제반사실(諸般事實)이 상술(詳述)되어 있어 매우 귀중한 사료(史料)로 평가된다. 「충제집(沖齋集)」에도 일부 정리하여 수록되어 있고 「중종실록(中宗實錄)」을 편찬할 때에도 사료(史料)로 이용되었다.

관료의 생활 실태와 중앙정부의 일상생활에 관한 기록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가 중요한 사료(史料)가 되는데, 선조이전(宣祖以前)의 것은 임난(壬亂)때 화소(火燒)되었으므로 이 일기(日記)는 유희춘(柳希春)의 미암일기(眉巖日記)와 함께 매우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또한 충제(沖齋)의 유창(流暢)한 문장(文章)과 활달한 필치(筆致)의 면에서도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충제(沖齋)의 일기(日記)로는 보물896호(12,13)로 지정된 영천군수(永川郡守) 재직시(在職時)의 일기(日記)인 「영양일기(永陽日記)」와 밀양부사(密陽府使) 재직시(在職時)의 일기(日記)인 「춘양일기(春陽日記)」도 있다.(당해 조항에서 후술(後述)함)

2. 근사록(近思錄) 보물(寶物)262號

주희(朱熹)(송(宋))·여조겸(呂祖謙)(송(宋))공찬(共撰),섭채(葉采)(송)집해(集解).

판종(版種) : 목판본(木版本)(원판복각(元版復刻)).

간지(刊地) : 진주(晉州).

간년(刊年) : 고려공민왕(高麗恭愍王)19年(1370).

수량(數量) : 14권 4책

좌우단변(左右單邊) 반곽(半郭) 17×11cm. 유계(有界). 반섭(半葉) 8행(行) 18자(字). 주(註) 소자쌍행(小字雙行). 흑구(黑口).

하향흑어미(下向黑魚尾). 23×16cm. 선장(線裝). 저지(楮紙).

판심계(板)(心)(題) : 사(思) 즉(卽) : 「규장지보(奎章之寶)」

어제충정공권별(御製忠定公權機) 수진근사록서(袖珍近思錄序) : 여천조지십유팔년갑인(予踐阼之十有八年甲寅)(1794)중추야(仲秋也)/통정대부승정원좌부승지(通政大夫承政院左副承旨)……신서영보(臣徐榮輔)(1759~1846) 봉(奉)/교근서(教謹書).

발(跋) : 경술(庚戌)(1370)기축(己丑) 삭(朔) 성산(星山) 노숙(魯叔) 근식(謹識)

간기(刊記) : 성산이씨(星山李氏) 간우진양(刊于晉陽), 중정대부(中正)(大夫) 진주목사(晉州牧師)……이인민(李仁敏) 등(7 인(人) 관직성명(官職姓名))

「근사록(近思錄)」은 송대(宋代)의 유학자(儒學者) 주희(朱熹)·여조겸(呂組謙)이 주돈이(周敦頤)·장재(張載)·정호(程顥)·정신(程頤) 등의 논저(論著)나 언론(言論)에서 대체(大體)와 일용(日用)에 절실한 것을 뽑아 편찬한 것. 진덕수(眞德秀)가 편찬한 「심경(心經)」과 함께 성리학(性理學)의 독본(讀本)으로서 우리 나라 유학자(儒學者)의 필독서(必讀書)였다.

이 책은 판식(板式)과 자체(字體)로 보아 원판(元板)을 번각(飜刻)한 것으로 추정(推定)된다. 제 14권 15장 안 끝에 간기(刊記)가 새겨져 있다. 즉 장방형(長方形) 안에 ‘성산이씨간우진양(星山李氏刊于晉陽)’이란 전문(篆文)이 새겨지고, 그 다음의 종형(鐘形)안에 ‘홍무삼년(洪武三年)(1370)과 정형(鼎形)안에 ’이노숙(李魯叔)‘이 각각 새겨져 있어 간행연대(刊行年代)·간행자(刊行者)·간행처(刊行處)를 정확히 알 수 있다. 또 책의 말미(末尾)에 경술(庚戌) 즉 공민왕(恭愍王) 19년(1370)에 찬(撰)한 간행자(刊行者) 이인민(李仁敏)의 발문(跋文)이 있다. 그 발문(跋文)에 의하면, 이 책은 고려 공민왕 19년(1370) 봄에 진주(晉州)로 부임하는 이인민(李仁敏)에게 성리학자(性理學者)인 사예(司藝) 박상충(朴尙衷)이 송별의 기념으로 선사한 것인데, 이인민(李仁敏)은 부임하는 즉시 간행(刊行)하였다 한다.

이 책은 충제권별(沖齋權機)이 늘 가지고 다니며 애독(愛讀)하던 수진본(袖珍本)으로 중종(中宗)때에는 경연(經筵)에서 진강(進講)한 바도 있다. 한번은 경회루(慶會樓)의 어사연(御賜宴)에서 빠뜨린 것을 중종(中宗)이 주인(主人)인 충제(沖齋)에게 되돌려주도록 한 사실이 있었다. 그 사실을 안 영조(英祖)는 재위 22년(1746)되던 해에 충제(沖齋)의 후손 권만(權萬)을 통하여 무신자본(戊申字本) 「근사록(近思錄)」 1질(帙)을 충제종손가(沖齋宗孫家)에 특지(特旨)로 하사(下賜)하였으며, 정조(正祖)는 재위 18년되던 해(1794)에 <어제충정공권별수진근사록서(御製忠定公權機袖珍近思錄序)>를 지어 좌부승지(左副承旨) 서영보(徐榮輔)에게 쓰여 본서(本書)와 함께 본손(本孫)에게 되돌려주었으며 그것이 지금까지 간직되어 온 것이다.

이 책은 원판(元板) 번각(飜刻)이기는 하나 그 전래가 극히 희귀한 고려말(高麗末) 유서(儒書)란 점에서 매우 귀중하게 평가되거니와, 충제(沖齋)의 수택본(手澤本)이란 점, 그리고 영조(英祖)가 찬미하고 정조(正祖)는 어람(御覽)하고 친히 서문(序文)까지 지어 붙인 책이란 점에서 그 가치는 더욱 높이 평가된다.

3. 우향계축(友鄉契軸) 보물(寶物) 896號

편자(編者) : 권자겸(權自謙) 등. 판종(版種) : 필사본(筆寫本).

연대(年代) : 성종(成宗) 9(1478). 수량(數量) : 1책(4장)

생초본면(生絹本面) : 64×35cm. 상(上)·중(中)·하(下) 3단(段). 주사난(朱絲欄) 26행

(行). 규격(規格) : 75.2×42.5cm.

재료(材料) : 생초(生絹) 및 저지(楮紙)(우향계축(友鄉契軸)만 생초(生絹)).

장정(裝訂) : 첩장(帖裝).

1) 현상(現狀) 및 유래(由來)

이 우향계축(友鄉契軸)은 성종(成宗)9년(1478)에 작성(作成)된 ‘우향계축(友鄉契軸)’을 기본으로 하여 진솔회축(眞率會軸) 1면(面), 권두인(權斗寅)(1643~1719)·권만(權萬)(1688~1749)의 식기(識記) 각(各) 1편(篇) 등으로 구성(構成)된 계회축(契會軸)을 첩장(帖裝)한 것이다. 엽순(葉順)에 따른 내용 배치는 다음과 같다.

①第 1면(面) : 표지(表紙)로, 우향계축(友鄉契軸)이란 제(題)첩(簽)이

②第 2면(面) : 사주적사란(四周赤絲欄)의 공백(空白).

③第 3면(面) : 우향계축(友鄉契軸)

④第 4면(面) : 진솔회축(眞率會軸)

⑤第 5면(面) : 권두인(權斗寅)의 식기(識記).

⑥第 6면(面) : 권만(權萬)의 식기(識記).

⑦第 7~8면(面) : 후표지(後表紙)

이 우향계축(友鄉契軸)은 숙종(肅宗) 18년 임신(壬申)(1692)에 당시 영춘현감(永春縣監)으로 있던 충제(冲齋)의 5세손(世孫)이며 우향계원(友鄉契員)인 권곤(權琨)의 7세손(世孫)인 권두인(權斗寅)이 역시 우향계원(友鄉契員)의 후손(後孫)인 남두회(南斗會)로부터 전득(傳得)하여, 숙종(肅宗) 38년(1712)에 작첩(作帖)하고 자신의 식기(識記)를 붙여 권씨가문(權氏家門)에서 보존(保存)하게 되었으며, 그 뒤 영조(英祖) 19년(1743)에 권곤(權琨)의 8세손(世孫) 권만(權萬)이 또 식기(識記)를 첨가(添加)하여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2) 내용(內容) 및 가치(價値)

① 우향계축(友鄉契軸)

생초(生絹)의 바탕 위에 상(上)·중(中)·하(下) 3단(段)으로 묵서(墨書)되어 있다. 상단(上段)은 ‘우향계축(友鄉契軸)’이란 제명(題名)이 횡서(橫書)되었고, 중단(中段)은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1420~1488)의 자작자필(自作自筆)의 칠언고시장편(七言古詩長篇)이 반초서체(半草書體)로 쓰여졌는데, 끝에 ‘성화무술(成化戊戌)(성종(成宗)9, 1478) 중동유일(仲冬有日) 달성(達城) 강중(剛中)’이라 적고 주색(朱色) 도장(圖章)으로 날인(捺印)하였다. 하단(下段)은 계원(契員)의 좌목(座目)인데, 권자겸(權自謙)을 비롯하여 배효건(裴孝騫) 등 13인의 관직(官職), 성명(姓名), 본관(本貫)과 부(父)의 관직(官職), 명자(名字)가 기록되었으며, 충제(冲齋)의 조부(祖父) 권곤(權琨)은 第 8에 기록되어 있다. 보존상태(保存狀態)가 불량(不良)하여 중앙일부(中央一部)가 파손(破損)되었다.

서거정(徐居正)의 제시(題詩)는 다음과 같다.

동방인인군자국(東方仁人君子國) 풍속제일칭안동(風俗第一稱安東). 시서조두일추노(詩書俎豆一鄒魯) 가가근검추당풍(家家勤儉追唐風). 화산호수천하기(花山湖水天下奇) 팽박소종다영웅(磅礴所鍾多英雄). 통삼이래다훈신(統三以來多勳臣) 곤곤지금불핍인(袞袞至今不乏人). 흑지지족거래(或知止足歸去來) 역혹고상이은륜(亦或高尚而隱倫). 생장노사어아향(生長老死於俄鄉) 역시태평지유민(亦是太平之遺民). 어언탁계영위호(於焉托契永爲好) 향촌지락난구진(鄉村之樂難俱陳). 춘중춘유추복추(春從春遊秋復秋) 가산승수궁오유(佳山勝水窮娛遊). 여갱조선역가락(茹羹釣鮮亦可樂) 영매송국무시휴(迎梅送菊無時休). 우유동관제자제(又有童冠諸子弟) 집양진퇴나성행(讓進退羅成行). 아석문지추부자(我昔聞

之鄒夫子) 일향선사우일향(一鄉善士友一鄉). 제군고의위운천(諸君高義爲雲天) 훈도덕성
인개현(薰陶德性人皆賢). 향유선속사개량(鄉有善俗士皆良) 천하교화수능선(天下教化誰能
先). 차향어아역상자(此鄉於我亦桑) 이문목도흔흔연(耳聞目 欣欣然). 방금소대채풍요(方
今昭代採風謠) 아욕탁지청편전(我欲托之青編傳) 한무대필여장연(恨無大筆如長椽).

성화무술중동유일(成化戊戌仲冬有日) 달성강중(達城剛中).

이 시(時)는 칠언고시장편(七言古詩長篇)으로 안동(安東) 사대부(士大夫)의 계획명(契
會名)인 우향계(友鄉契)에 대해 서술(敘述)한 것으로, 성균관대학교(成均館大學敎) 박물관
(博物館) 소장(所藏)의 복사본(複寫本)이 서거정(徐居正)의 시고(詩稿)로 유포(流布)되
고 있는데, 시(詩)의 내용(內容)은 동일(同一)하나 필체(筆體)에 있어 이 우향계축(友鄉
契軸)은 반초체(半草體)이고 성대소장본(成大所藏本)은 행서(行書)이다.

하단(下段)에 수록(收錄)된 계원(契員)은, 권자겸(權自謙)·배효건(裴孝騫)·이증(李
增)·남경신(南敬信)·노맹신(盧孟信)·배효눌(裴孝訥)·남정공(南政恭)·권곤(權琨)·
남치정(南致鼎)·남경인(南敬仁)·배주(裴禰)·배정(裴)·권숙형(權淑衡) 합(合) 13인
(人)이다.

② 진솔회축(眞率會軸)

양질저지(良質楮紙)에 상(上)·중(中)·하(下) 3단(段)으로 주사난(朱絲欄)이다. 상단
(上段)은 ‘진솔회축(眞率會軸)’이란 제목(題目)이 있고 중단(中段)은 공백(空白)이며, 하
단(下段)은 유수(留守) 이광(李沍) 등 15인(人)의 좌목(座目)이 있다. 이 진솔회축(眞率
會軸)은 우향계 정원로(鄭元老)·김영진(金永鎔)·김윤이(金允離)·박숙(朴塾)·권사영
(權士英)·권사빈(權 南팔준(南八俊)·남경지(南敬智) 등 15인(人)이다.

중단(中段)을 공백(空白)으로 둔 것은 우향계축(友鄉契軸)의 서거정(徐居正)의 제시
(題詩)와 같은 명문(名文)을 구득(求得)하여 증보(增補)하려는 의도인 듯하다

③ 第 5~6면(面)의 권두인(權斗寅)·권만(權萬)의 시기(試記).

第 5면(面)은 말미(末尾)에 ‘세집서월생빈(歲執徐月生賓) (진(辰), 1712, 오월(五月))
판서공(判書公)(권곤(權琨)) 칠세손(七世孫) 권두인(權斗寅) 근식(謹識)’라고 자서(自
署)한 권두인(權斗寅)의 식기(識記)가 있는데, 우향계축(友鄉契軸)의 입수경위(入手經緯)
와 작첩(作帖)한 사실, 내용 등을 적고 있다. 第 6면(面)은 말미(末尾)에 ‘상지십구년계
해(上之十九年癸亥)(1743) 구월상순(九月上旬) 의정공(議政公)(권사빈(權士彬)) 칠세손
통훈대부(七世孫通訓大夫) 전병조좌랑(前兵曹佐郎) 권만(權萬) 배수근서(拜手謹書)’라고
자서(自署)한 권만(權萬)의 식기(識記)가 있는데 주로 진솔회축(眞率會軸)의 구성배경
(構成背景)에 대해 서술(敘述)하고 있다.

이 우향계축(友鄉契軸)은 성종(成宗) 9年(1478)에 안동(安東)에 거주(居住)하는 권자겸
(權自謙)을 비롯한 13인(人)의 사대부(士大夫)들이 결사(結社)한 친목(親睦)모임의 계획
축(契會軸)에 그 자(子)와 외손(外孫)의 계획축(契會軸)인 진솔회축(眞率會軸)이 첨가된
것으로서, 조선전기(朝鮮前期) 계획연구(契會研究)에 귀중한 자료이며 또한 중단(中段)
에 쓰인 조선전기(朝鮮前期) 문호(文豪)이며 명필(名筆)인 서거정(徐居正)의 자작자필
(自作自筆)의 장편시(長篇詩)는 그 가치를 한층 더해 준다.

4. 홍치구년병진윤삼월생원(弘治九年丙辰閏三月生員)·진사방목(進士榜目) 보물(寶物) 896號

판종(版種) : 갑진자본(甲辰字本). 연대(年代) : 연산군(燕山君)2(1496)

수량(數量) : 1책(24장)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17.2×10.7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行) 16자(字). 상대흑구(上大黑口). 내향삼엽화문어미(內向三葉花紋魚尾).

규격(規格) : 22.5×14cm. 선장(線裝). 저지(楮紙).

표제(表題) : 병진사마방목(丙辰司馬榜目)(필사(筆寫))

이 간본(刊本)은 연산(燕山)2년(1496)에 실시한 홍치구년병진생원진사방목(弘治九年丙辰生員進士榜目)으로 곧 충제(冲齋) 권벌(權撥)(1478~1548)이 진사시(進士試) 2등(等) 15인(人)에 합격(合格)한 방(榜)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간본방목(刊本榜目)으로는 가장 초기에 간행된 사마방목(司馬榜目)이다. 보물(寶物)524號로 지정된 중종(中宗)8년(1513)의 정덕계유사마방목(正德癸酉司馬榜目)보다 17년이 앞선다. 내용구성(內容構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장에 ‘은문(恩門)’이란 제하(題下)에 일소(一所)·이소(二所)의 시관(試官) 최응현(崔應賢)·신중호(申從濩) 등 12인(人)의 산목(産目)이 있다.

다음 별면(別面)에는 ‘홍치구년병인윤삼월(弘治九年丙辰閏三月初)삼일(三日)생원(生員)방(榜)’이란 제하(題下)에 생원(生員)시(試) 합격(合格)자(者)의 좌목(座目)이 있는데, 1등(等)에는 김(金)극(克)성(成) 등 5인(人)이고, 2등(等)에는 신결(申) 등 25인(人)이며, 3등(等)에는 박신인(朴臣鱗) 등 70인(人)으로 합격자(合格者)의 관직(官職)·자(字)·거주지(居住地)와 부(父)의 관계(官階)·관직(官職)·명(名)이 열록(列錄)되어 있다. 다음에 ‘진사방(進士榜)’이란 제하(題下)에 진사시(進士試) 합격자(合格者)의 좌목(座目)이 있는데, 1등(等)에는 김우서(金禹瑞) 등 5인(人)이고, 2등(等)에는 강흔(姜訥) 등 25인(人)이며, 3등(等)에는 김영중(金永重) 등 70인(人)으로 역시 합격자(合格者)의 관직(官職)·자(字)·거주지(居住地)와 부(父)의 관계(官階)·관직(官職)·명(名)이 열록(列錄)되어 있다.

서지(書誌)학(學)연구(研究)의 자료(資料)임은 물론(勿論), 사마방목(司馬榜目) 및 인물연구(人物研究)에 귀중한 자료이다.

5. 정덕이년삼월문(正德二年三月文)·무(武)·잡과방목(雜科榜目) 보물(寶物)896號

판종(版種) : 을해자본(乙亥字本). 연대(年代) : 중종(中宗)2년(1507)

수량(數量) : 1책(23장)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21.8×14.6cm. 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 17자. 상하대흑구(上下大黑口). 내향흑어미(內向黑魚尾).

규격(規格) : 26.4×18.6cm. 선장(線裝). 저지(楮紙).

표제(表題) : 정묘춘용호방목(丁卯春龍虎榜目)(필사(筆寫))

이 책은 을해자본(乙亥字本)으로서 중종(中宗)2년(1507)에 별시(別試)로 시행한 문(文)·무(武)과 및 역(譯)·의(醫)·율과(律科) 등 잡과(雜科)의 방목(榜目)인데, 충제(冲齋) 권벌(權撥)(1478~1548)이 문과별시(文科別試) 병과제2인(丙科第2人(등(等)))에 합격한 방(榜)이다. 현재 알려진 것으로는 가장 오랜 간본(刊本) 문(文)·무과방목(武科榜目)이다.

내용구성(內容構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과방목(文科榜目)으로 첫머리에 ‘은문(恩文)’이란 제하(題下)에 독권관(讀卷官)

우의정(右議政) 유순정(柳順汀) 등 8인(人)과 일소(一所) 성균관(成均館)의 시관(試官) 송질(宋) 등 9인(人), 이(二)소(所) 장악원(掌樂院)의 시관(試官) 강(姜)혼(渾) 등 9인(人)의 좌목(座目)이 있고 , 다음 별면(別面)으로 '정덕이년삼월이십육일문과별시방목(正德二年三月二十六日文科別試榜目)'이란 제하(題下)에 갑과(甲科) 김정(金) 등 3인(人). 을과(乙科) 홍언필(洪彦弼) 등 7인(人), 병과(丙科) 연구령(延九齡) 등 26인(人) 등 급제자(及第者) 36인(人)의 좌목(座目)이 있다.

둘째. 무과방목(武科榜目)으로 첫머리에 '은문(恩門)'이란 제하(題下)에 일소(一所) 훈련원(訓練院)의 시관(試官) 윤탕노(尹湯老) 등 10인(人), 이소(二所) 모화관(慕華館)의 시관(試官) 민효증(閔孝曾) 등 10인(人)의 좌목(座目)이 있고, 다음 별면(別面)으로 '정묘삼월이십오일무과전시방목(丁卯三月二十五日武科殿試榜目)'이란 제하(題下)에 갑과(甲科) 하순(河洵) 등 3인(人), 을과(乙科) 김수협(金粹獫) 등 5인(人). 병과(丙科) 이계장(李繼長) 등 20인(人) 등 급제자(及第者) 28인(人)의 좌목(座目)이 있다.

셋째, 역과방목(譯科放牧)으로 1등(等) 박수영(朴守榮) 1인(人), 2등(等) 차윤조(車允祖) 등 3인(人), 3등(等) 홍식(洪植) 등 15인 등 급제자(及第者) 19인(人)의 좌목(座目)이 있다.

넷째, 의과방목(醫科榜目)으로 첫머리에 시관(試官) 이손(李蓀) 등 3인(人), 참시관(參試官) 이수(李穰) 등 5인(人)의 좌목(座目)이 있고, 다음 별면(別面)으로 갑과(甲科)는 이삼길(李三吉) 1인(人), 을과(乙科) 신명호(申命浩) 등 2인(人), 병과(丙科) 박승명(朴承明) 등 5인(人) 등 급제자(及第者) 8인(人)의 좌목(座目)이 있다.

다섯째, 율과방목(律科榜目)으로 첫머리에 시관(試官) 김응기(金應箕) 등 9인(人)의 좌목(座目)이 있고, 이어 1등 박세번(朴世蕃), 2등 한형손(韓亨孫) 등 3인(人), 3등 최운(崔沄) 등 5인(人) 등 합격자(合格者) 9인(人)의 좌목(座目)이 있다.

문과(文科)· 무과(武科)· 역과(譯科)· 의과(醫科)· 율과(律科) 등 대과(大科)의 방목(放牧)이 종합(綜合)되어 있어 과거제도(科擧制度)· 방목연구(放牧研究) 및 인물연구(人物研究)는 물론이려니와, 서지학연구(書誌學研究)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6. 광국원종공신록권(光國原從功臣錄券) 보물(寶物)第896號

편자(編者) : 공신도감(功臣都鑑) 편(編). 판종(版種) : 재주갑인자본(再鑄甲寅字本).

연대(年代) : 선조(宣祖)24(1591). 수량(數量) : 1책(20장)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25.2×17.1cm. 유계(有界).

반엽(半葉) 10행(行) 17자(字). 내향삼엽화문어미(內向三葉花紋魚尾).

규격(規格) : 37.7×23.1cm. 선장(線裝). 저지(楮紙).

인(印) : 「시명지보(施命之寶)」(3개(個)) 「청암가보(靑巖家寶)」

이 녹권(錄券)은 만력(萬曆)19年 즉 선조(宣祖)24年(1591) 윤삼월(閏三月)에 광국공신도감(光國功臣都鑑)에서 광국원종공사(光國原從功臣) 1등 우찬성(右贊成) 권벌(權撥)에게 발급(發給)한 것이다. 광국공신(光國功臣)은 선조(宣祖)23年(1591)에 종손판무(宗孫辦誣)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훈호(勳號)인데, 정공신(正攻臣) 이외에 작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공신의 칭호를 원종공신(原從功臣)이라 한다.

충계(沖濟)는 중종(中宗)34年(1539)에 종계개정주청사(宗系改正奏請使)로 명(明)에 가서 이듬해에 종계개정(宗系改正)의 윤칙(允勅)을 받아 돌아와서 노비(奴婢)를 하사(下賜)받은 적이 있다. 종계판무(宗系辦誣)란 조선태조(朝鮮太祖) 이성계(李成桂)의 조상이

명(明)나라 서적에 오기(誤記)된 것을 정정하던 일 . 즉 명(明)의 「태조실록(太祖實錄)」·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조선태조(朝鮮太祖)의 아버지가 고려 권신(權臣) 이인임(李仁任)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여러차례 사신을 보내어 수정을 요구하였는데, 선조(宣祖) 17年(1584) 황연옥(黃延彧)이 수정하는 데 성공했고, 1587年 유흥(兪泓)이 수정된 「대명회전(大明會典)」을 가지고 돌아옴으로써 종계판무(宗系辨誣)가 완료(完了)되었다. 선조(宣祖)23年(1590)에 광국공신(光國功臣)을 책록(策錄)하고, 이듬해에 공신록권(錄券功臣)을 발급하였는데, 충제(沖濟)가 죽은 지 43年만에 내려진 것이다.

첫장 상단(上段)에 「시명지보(施命之寶)」란 어보(御寶)가 찍혀 있고, 동하단(同下段)에 「청암가보(靑巖家寶)」란 소장인(所藏印)이 있는데 청암(靑巖)은 충제(沖濟)의 장자(長子) 권동보(權東輔)의 號이다.

내용구성(內容構成)을 살펴보면 권수제(權首題) 아래에 ‘우찬성(右贊成) 권벌(權機)’이라 쓰고 줄을 갈아 증계판무(宗系辨誣)의 공적(功績)을 기록하고 이어서 공신(功臣)의 명단(名單)을 1, 2, 3 등으로 나누어 열록(列錄)하고 그 다음에 상전(賞典)의 순으로 기술되었다. 끝에 공신도감(功臣都鑑)의 좌목(座目)이 있다.

이 책은 서지학(書誌學) 및 공신도감(功臣都鑑) 연구(研究)의 자료(資料)이다.

7. 신편고금사문유취(新編古今事文類聚) 보물(寶物)第 896號

편저자(編著者) : 축목(祝穆)(송) 편(編). 판종(版種) : 갑진자본(甲辰字本).

연대(年代) : 성종(成宗)24(1493) 수량(數量) : 35책(冊)(영본(零本))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21×14.9cm. 유계(有界). 반엽(半葉) 12행(行) 19자(字).

주쌍행(註雙行). 내향이엽화문어미(內向二葉花紋魚尾).

규격(規格) : 28.6×19cm. 선장(線裝). 저지(楮紙).

표제(表題) : 사문유취(事文類聚)(필사(筆寫)). 판심제(版心題) : 사문(事文)

서(序) : 순우병오(淳祐丙午)(1246) 납월망일(臘月望日) 만진(晩進) 백화보(伯和甫)

(임(林)내(乃)정(鼎)) 근식(謹識).

인(印) : 권두인(權斗寅)(1643~1719)

장본(藏本) : 목록(目錄) 3, 5, 6, 본편(本編) 권(卷) 1~3, 7~10, 11~13, 14~17, 29~31, 38~41, 46~49, 50~55, 56~61, 66~68, 69~72, 76~79, 80~82, 86~89, 97~100, 109~111, 112~115, 125~129, 135~140, 141~145, 146~151, 152~156, 157~160, 161~165, 166~170, 177~181, 182~186, 187~188, 189~191, 192~198, 199~202, 212~215, 35책.

이 사문유취(事文類聚)는 경(經)·사(史)·자(子)·집(集)에 따라 사실(事實)·시문(時文)을 유별(類別)로 모은 책. 전집(前集)·후집(後集)·속집(續集)·별집(別集) 등은 송(宋)의 축목(穆)이 편찬하고, 신집(新集)·별집(別集) 등은 원(元)의 부대용(富大用)이, 유집(遺集)은 원(元)의 축연(祝淵)이 편찬하였다.

이 사문유취(事文類聚)는 백과사전류(百科事典類)로 우리 나라의 학자(學者)들이 많이 읽은 책으로 간행(刊行) 또한 빈번하였으나, 갑진자본(甲辰字本)이 전질(全帙)로 소장(所藏)된 것이 없는 곳으로 나타났다. 충제손종가(沖濟宗孫家)의 소장본(所藏本)도 낙질(落帙)이 많기는 하나 현재 양적으로 가장 많으며 또한 보존상태도 비교적 좋은 편이다. 판식(版式)·서(序) 등이 다른 갑진자본(甲辰字本)과 상이(相異)한 점이 다소 나타나는

바, 정밀(精密)한 비교검토가 요구된다.

8. 역학계몽요해(易學啓蒙要解) 보물(寶物) 第 896號

편저자(編著者) : 주희(朱熹)(송(宋))찬(撰), 세조(世祖)(조선(朝鮮)) 요해(要解).

판종(版種) : 목판본(木版本).

연대(年代) : 중종(中宗)7(1512) 수량(數量) : 4권 2책.

사주쌍변(四周雙邊). 반곽(半郭) 24.4×16.3cm. 유계(有界).

반엽(半葉) 8행 17자. 주쌍행(註雙行). 상하대흑구(上下大黑口), 내향흑어미(內向黑魚尾).

규격(規格) : 35.2×22cm. 선장(線裝). 저지(楮紙).

판심제(版心題) : 계몽요해(啓蒙要解)

서(序) : 어제(御製)(역학계몽요해(易學啓蒙要解)) 서(序)……(세조(世祖)).

역학계몽서(易學啓蒙序)……순희병오(淳熙丙午)(1186)모춘(暮春)(3월)기망(既望)(16일)
운대진일(雲臺眞逸)(주희(朱熹)) 수기(手記).

발(跋) : 성화이년병술(成化二年丙戌)(1466)이월상한(二月上澣)……최항(崔恒)
배수근발(拜手謹跋)

인(印) : 「선사지기(宣賜之記)」

내사기(內賜記) : 정덕칠년(正德七年)(1512)이월(二月)/내사홍문관(內賜弘文館) 부교리
권벌 주역계몽일건(副校理權撥周易啓蒙一件) 명제사은(命除謝恩)/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조(趙)[수결(手決)]

송(宋)의 주희(朱熹) 소찬(所撰)의 「역학계몽(易學啓蒙)」을 조선(朝鮮) 7대왕(代王) 세조(世祖)가 요해(要解)하고 김국광(金國光) 등 제신(諸臣)에게 교정(校正)을 보게 하여 동왕(同王) 11년(1466)에 간행(刊行)하였다. 권수(卷首)에 어제서(御製序)와 주희(朱熹)의 역학계몽서(易學啓蒙序)가 있으며 끝에 최항(崔恒)의 발문(跋文)이 있다. 표지(表紙)이면(裏面)에 내사기(內賜記)가 있고, 첫장 좌측(左側) 상단(上段)에 「선사지기(宣賜之記)」란 어보(御寶)가 찍혀 있다.

이 책은 중종(中宗)7년(1512)이월(二月)에 국왕(國王)이 당시 홍문관부교리(弘文館副校理)인 충제(沖濟)에게 내린 선사본(宣賜本)이다. 목판본(木版本)이기는 하나 각자(刻字)가 매우 정교(精巧)하고 보존상태(保存狀態)도 양호(良好)하다. 내사기(內賜記) 작성년(作成年代)을 간년(刊年)으로 정(定)하였다.

조선전기간본(朝鮮前期刊本)으로 서지학연구(書誌學研究)의 자료(資料)이며 특히 내사기(內賜記)가 있어 「역학계몽요해(易學啓蒙要解)」의 간년(刊年)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

9.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 보물(寶物) 第896號

저자(著者) : 구준(丘濬)명(明) 저(著). 판종(版種) : 초주갑인자본(初鑄甲寅字本).

연대(年代) : 중종(中宗)10년(1515). 수량(數量) : 41책(영본(零本). 51책중(冊中))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25×17cm. 유계(有界).

반엽(半葉) 10행 17자. 주쌍행(註雙行). 상하대흑구(上下大黑口).

내향삼엽화문어미(內向三葉花紋魚尾).

규격(規格) : 34.3×22cm. 선장(線裝). 저지(楮紙).

판심제(版心題) : 간의보(義補)

근제청지(謹題請旨) : 홍치원년(弘治元年)(1488) 정월이십오일(正月二十五日)……주홍모(周洪謀)(명(明)) 등(等) 7인(人)

진대학간의보표(進大學 義補表) : 성화이십삼년(成化二十三年)(1487)십(十)일월십팔일(一月 十八日)……구준명(丘濬)(明)

서(序) : ……(구(丘))준(濬) 근서(謹序)

인(印) : 「선사지기(宣賜之記)」 「청암가보(靑巖家寶)」

내사기(內賜記) : 정덕십년(正德十年)(1515)칠월(七月)/내사영천군수권벌대학간의보일건(內 賜永川郡守權撥大學 義補一件)/명제사은(命除謝恩)/좌승지신(左承旨臣)

이(李)[수결(手決)]

결본(缺本) : 권(卷) 10~11, 17~19, 70~72, 76~79, 91~93, 97~99, 111~113, 123~125, 136~139, 146~148 등 10책.

대학간의보(大學 義補)는 명(明)의 구준(丘濬)이 지은 책으로 송(宋)의 진덕수(眞德秀)가 지은 「대학간의(大學 義)」가 수신(修身)·제가(齊家)를 주(主)로 논설(論說)한 것을 보충할 의도로, 수신(修身)·제가(齊家) 이외에 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필요를 역설한 경서(經書)이다.

권수(卷首)에 청지(請旨)가 있고 구준(丘濬)(명(明))의 진표(進表)와 서(序)가 있다. 표지이면(表紙裏面)에 내사기(內賜記)가 있고 첫장 우측(右側) 상단(上段)에 「선사지기(宣賜之記)」란 내사인(內賜印)과 동하단(同下端)에 「청암가보(靑巖家寶)」장서인(藏書印)이 찍혀 있다.

이 책은 중종(中宗)10년(1515)칠월(七月)에 국왕(國王)이 당시 영천군수(永川郡守)인 충제(冲濟) 권벌(權撥)에게 내린 선사본(宣賜本)이다. 보존상태(保存狀態)는 양호(良好)한 편이나 51책중(冊中) 41책만이 보존(保存)되어 있다. 내사기(內賜記)의 연대(年代)를 간년(刊年)으로 정하였다. 이책이 결본(缺本)이 있기는 하나 내사기(內賜記)가 있는 초주갑인자본(初鑄甲寅字本) 「대학간의보(大學 義補)」란 점에서 서지학연구(書誌學研究)에 귀중한 자료이다.

10. 근사록(近思錄) 보물(寶物)第896號

저자(著者) : 주희(朱熹)(송(宋))·여조겸(呂祖謙)(송(宋)) 찬(撰). 판종(版種) : 초주갑인자본(初鑄甲寅字本).

간년(刊年) : 중종(中宗)14(1519) 수량(數量) : 9권 3책.(한본(寒本) : 결권(缺卷) 10~14) 사주쌍변(四周雙邊). 반곽(半郭) 26.5×16.7cm.유계(有界).

반엽(半葉) 9행 18자. 주쌍행(註雙行) 내향삼엽화문어미(內向三葉花紋魚尾).

규격(規格) : 36.1×21.6cm. 선장(線裝). 저지(楮紙).

근사록집해서(近思錄集解序) : 순우무신(淳祐戊申)(1248) 장지일(長至日)……섭채(葉采)(송(宋)) 근서(謹序).

진표(進表) : 순우이십년(淳 二十年)(1252)정월(正月) 일(日)……섭채(葉采) 상표(上表)

인(印) : 「선사지기(宣賜之記)」 「청암가보(靑巖家寶)」

내사기(內賜記) : 정덕십사년(正德十四年)(1519)정월(正月) 일(日)/내사승정원도승지권벌

근 사록일건(內賜承政院都承旨權機近思錄一件)/명제사은(命除謝恩)/좌승지유(左承旨柳)
[수결(手決)]

이 책은 중종(中宗) 14年(1519)정월(正月)에 국왕(國王)이 당시 승정원도승지(承政院都承旨)인 충제권벌(沖濟權機)에게 내린 선사본(宣賜本)이다.

표지이면(表紙裏面)에 내사기(內賜記)가 있고 첫장 상단우측(上端右側)에 「선사지기(宣賜之記)」란 내사인(內賜印)이, 동하단(同下端)에 「청암가보(靑巖家寶)」란 소장인(所藏印)이 찍혀 있다. 내사기(內賜記)의 연대(年代)를 간년(刊年)으로 정한 것이다. 충제종손가(沖濟宗孫家)에는 공민왕(恭愍王)19年(1370) 간행(刊行)된 목판본(木版本)의 근사록(近思錄)과 무신자본(戊申字本) 근사록(近思錄), 이 초주갑인자본(初鑄甲寅字本) 등 3질(帙)이 보물(寶物)262號와 896號(8,15)로 각각 지정되었다. 이 책은 내사기(內賜記)가 있는 초주갑인자본(初鑄甲寅字本)의 「근사록(近思錄)」이란 점에서 서지학연구(書誌學研究)의 귀중한 자료이다.

11. 주자대전(朱子大全) 보물(寶物)第896號

저자(著者) : 주희(朱熹)(송(宋)) 저. 판종(版種) : 을해자본(乙亥字本).

간년(刊年) : 중종(中宗)38年(1543) 수량(數量) : 90책(冊)(영본(零本))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각(半郭) 23.4×16cm. 유계(有界).

반엽(半葉) 10행(行) 18자(字). 주쌍행(註雙行). 내향삼엽화문어미(內向三葉花紋魚尾).

규격(規格) 31.4×19.6cm. 선장(線裝). 저지(楮紙).

중간서(重刊序) : 천순사년세차경진(天順四年歲次庚辰)(1460)……호집(胡緝)(명(明)) 서(序).

속집서(續集序) : 순우오년(淳五年)(1245) 정월(正月) 후학(後學) 왕수(王遂)(송(宋)) 서(序)

별집서(別集序) : 함순원년(咸淳元年)(1256) 유월삭(六月朔)……황용(黃鏞)(송(宋))

근서(謹序).

인 : 「선사지기(宣賜之記)」 「권두인(權斗寅)」

내사기(內賜記) : 가정이십이년(嘉靖二十二年)(1543)육월(六月) 일(日)/내사의정부좌참찬권 벌주자대전일건(內賜議政府左參贊權機朱子大全一件)/명제사은(命除謝恩)/

도승지신홍(都承旨臣洪)[수결(手決)]

결본(缺本) : 원집(原集) 권(卷) 10, 55, 57, 64, 93 등 5책.

「주자대전(朱子大全)」은 송(宋)의 학자(學者) 주희(朱熹)의 시문집(詩文集), 원집(原集) 100권 87책, 속집(續集) 11권 4책, 별집(別集) 10권 4책, 합(合) 95책을 중종(中宗) 38年(1543)에 을해자체(乙亥字體)로 간행(刊行)하였다. 이 책은 그때 즉 중종(中宗) 38年(1543)에 국왕(國王)이 당시 좌참찬(左參贊)으로 재직(在職)한 충제(沖濟)에게 내린 선사본(宣賜本)이다. 목록권(目錄卷) 표지이면(表紙裏面)에 내사기(內賜記)가 있고 첫장 상단우측(上端右側)에 ‘선사지기(宣賜之記)’란 선사인(宣賜印)이, 동하단(同下端)에 ‘권두인(權斗寅)’이란 소장인(所藏印)이 찍혀있다. 전질중(全帙中) 5책(冊)이 결본(缺本)이기는 하나 거의 완질(完帙)에 가까우며 내사기(內賜記)가 있는 을해자본(乙亥字本) 「주자대전(朱子大全)」이란 점에서 서지학(書誌學) 및 주자학연구(朱子學研究)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12. 유향설원(劉向設苑) 보물(寶物)第896號

편저자(編著者) : 유향(劉向)(한(漢)) 저(著), 증공(曾鞏)(송(宋)) 집편(集編).
 판종(版種) : 본판본(本板本). 간년(刊年) : 중종(中宗)26年(1531)이전(식기(識記)).
 수량(數量) : 2권(卷) 1책(冊)(영본(零本)). 현존(現存) : 권수(卷首), 권(卷) 1)
 사주쌍변(四周雙邊). 반곽(半郭) 18.6×15cm. 유계(有界).
 반엽(半葉) 11행(行) 18자(字). 상하소흑구(上下小黑口). 내향흑어미(內向黑魚尾).
 규격(規格) : 26.6×18.7cm. 선장(線裝). 저지(楮紙).
 판심제(版心題) : 설원(說苑)
 서(序) : 증공(曾鞏)(송(宋))
 식기(識記) : 가정신유(嘉靖辛酉)(중종(中宗)26, 1531) 맹하(孟夏) 감사(監司)
 임사균소증(任士均所贈).

인(印) : (판독불능)

「유향설원(劉向設苑)」은 한(漢)의 유향(劉向)이 편찬한 책. 군도(君道)·신술(臣術)……잡언(雜言)·수문(修文) 등 20편으로 나누어 한 편을 한 권으로 하여 총 20권. 중국(中國)의 일화(逸話)들을 수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20권 5책의 목판(木板)으로 간행(刊行)하였다.

표지이면(表紙裏面)에 ‘가정신묘(嘉靖辛卯)(1531) 맹하(孟夏) 감사(監司) 임사균소증(任士均所贈)’이란 충제(冲齋)의 자필식기(自筆識記)가 있고, 권수(卷首) 첫장 하단(下段)에 소장인(所藏印)이 찍혀 있으나 희미하여 판독이 불가능(不可能)하다.

이 식기(識記)에 의하면, 이 책은 충제(冲齋)가 가정신묘(嘉靖辛卯) 즉 중종(中宗) 26年(1531)에 감사(監司) 임사균(任士均)에게서 증여(贈與)받은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간년(刊年)도 중종(中宗) 26年(1531)이전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중종(中宗) 26年(1531) 이전에 간행(刊行)된 목판본(木版本)으로 현재 성암박물관(誠菴博物館) 등에 미완질(未完帙)의 몇 건(件)이 소장(所藏)된 희구본(稀覯本)이다. 또한 간년(刊年)도 임난(壬亂) 이전으로 추정(推定)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책이 발견(發見)됨으로써 중종(中宗) 26年(1531) 이전에 간행(刊行)된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13. 을사정난기(乙巳定難記) 보물(寶物)第896號

편저자(編著者) : [미상(未詳)] 판종(版種) : 을해자본(乙亥字本).
 간년(刊年) : [명종연간(明宗年間)] 수량(數量) : 1책(64장(張))
 사주쌍변(四周雙邊). 반곽(半郭) 24.3×16.2cm. 유계(有界).
 반엽(半葉) 10행(行) 19자(字). 주쌍행(註雙行). 대흑구(大黑口).
 내향삼엽화문어미(內向三葉花紋魚尾).
 규격(規格) : 34×20.5cm. 가칠(假綴)(원선장(原線裝)이 파손(破損)). 저지(楮紙).
 인(印) : 「선사지기(宣賜之記)」 「창설제(蒼雪齋)」

이 책은 명종(明宗) 즉위년 을사(乙巳)(1545) 8월(月)이후 정순봉(鄭順朋)·임백령(林百齡) 등 소윤일파(小尹一派)가 윤임(尹任) 등 대윤일파(大尹一派)와 자기들에게 동조(同助)하지 않은 조신(朝臣)을 사사(賜死) 또는 유배(流配)한 소위 을사사화(乙巳士禍)의 사건전말을 소윤일파(小尹一派)의 입장(立場)에서 적은 것이다. 이 책이 표지(表紙)

가 떨어져 나가고 뒷부분의 일부도 떨어져 나가서 간행사실과 기사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첫장 첫머리에 ‘금상원년(今上元年)(가정이십사년(嘉靖二十四年))팔월(八月)’로 시작하여 현존본(現存本) 맨 마지막장의 ‘권벌삭주(權撥朔州)……백인걸안변(白仁傑安邊)……부처(付處)’등의 기록(記錄)으로 미루어 보아, 을사사화(乙巳士禍)의 시초(始初)인 을사년(乙巳年)(1545) 8월(月)부터 대운일파(大尹一派) 및 사림(士林)의 숙청(肅淸)을 마감한 정미년(丁未年)(1547)까지의 사실이 수록된 듯하다. 이 책의 간행은, 희릉(禧陵)이 정릉(靖陵)으로 개호(改號)된 사실이 소주(小註)에 나온 점으로 보아, 중종(中宗)의릉(陵)이 정릉(靖陵)으로 개호(改號)된 명종(明宗) 17년(1562)이후로 추정(推定)된다. 당초 인종(仁宗)이 승하하고 명종(明宗)이 왕위에 오른 을사년(乙巳年)(1545)8월(月)에는 충제권벌(冲齋權撥)도 입직원상(入直院相)으로 있었는데, 대운일파(大尹一派)를 숙청하고 득세(得勢)한 소운일파(小尹一派)에 의해 책록(策錄)한 위사공신(衛社功臣)(처음에는 보익공신(保翼功臣))에 처음으로 명단(名單)이 들었으나 정순붕(鄭順朋)의 반대(反對)로 삭제(削除)되고 이어 양재역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에 연루, 삭주(朔州)에 유배(流配)되었다.

이 책의 상태를 살펴보면, 앞뒤가 가위가 떨어져 나가고 권두서명(卷頭書名)이 있는 첫장의 상단우측(上端右側)에 「선사지기(宣賜之記)」란 선사인(宣賜印)이 찍혀 있으며, 동하단(同下端)에 ‘창설제(蒼雪齋)’란 소장인(所藏印)이 찍혀 있다. 뒷부분은 상당량이 떨어져나간 듯하며, 현존본(現存本) 끝장 하단(下端)에 역시 ‘창설제(蒼雪齋)’란 소장인(所藏印)이 찍혀 있는 점으로 보아 창설제(蒼雪齋) 권두경(權斗經)(1654~1726) 당시에 도 표지들이 떨어져 나간 것임을 알 수 있다. 원래 선장(線裝)이었던 것이 뒤에 풀어진 흔적이 있다.

이 책이 현존 제도서목록(諸圖書目錄)에 보이지 않고 있다. 아마 선조(宣祖) 즉위후(卽位後) 대운일파(大尹一派) 등을 숙청하고 소운일파(小尹一派)에 의해 책록(策錄)한 위사공신호(衛社功臣號)를 위훈(僞勳)이라 하여 삭탈(削奪)하였는데, 이 책도 따라서 전존(傳存)되지 않은 듯하다. 「선사지기(宣賜之記)」가 날인된 부분만 있고 내사기(內賜記)가 쓰였던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수급자(受給者)가 누구인지 미상(未詳)하다.

현존(現存)하지 않는 유일본(唯一本)이란 점에서 서지연구(書誌研究)에 귀중한 자료임을 물론이려니와, 소운일파(小尹一派)에 쓰여진 것이기는 하나, 나름대로 을사사화(乙巳士禍)의 사건전말을 기록한 것인만큼 을사사화(乙巳士禍)의 일면을 살피는 데 귀중한 사료(史料)가 될 것이다.

14. 충제일기(冲齋日記)(영양일록(永陽日錄) 보물(寶物)第896號

저자(著者) : 권벌(權撥) 저(著). 판종(版種) : 필사본(筆寫本)(자필고본(自筆稿本))
 작성지(作成地) : 영천(永川). 연대(年代) : 중종(中宗)9(1514)~중종(中宗)10(1515)
 수량(數量) : 1책(19장). 무게(無界). 매엽(每葉) 15~17행(行), 자수부정(字數不定).
 규격(規格) : 30.4×24.2cm. 선장(線裝). 저지(楮紙).

이 책은 충제(冲齋)의 자필일기본(自筆日記本)으로서, 충제(冲齋)가 영천군수(永川郡守)로 재직할 때의 일기(日記)이다. 표지서명(表紙書名)은 닳아져서 분명(分明)하지 않으나 ‘영양일록(永陽日錄)’으로 판독된다. 표지권면(表紙券面)에 수령(守令)으로서 해야 할 도리(道理)를 자필(自筆)로 적은 자경문구(自警文句)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극성지편(克性之偏)/이완극지이민(弛緩克之以敏) 부박극지이단(浮薄克之以端) 솔략극지이상 (率略克之以詳) 번가극지이대(煩苛克之以大)

심성애민(心誠愛民) 지무불급(智無不及)

사불예지(事不豫知) 난이졸응(難以卒應)

상서(庠序) 전치(轉置) 창회(倉會) 영어(囹圄) 구혁(溝洫) 교량(橋梁)

본 일기(本日記)는 ‘갑술(甲戌)(1514) 九月 十四日’로부터 시작하여 ‘을해(乙亥)(1515) 十月 十六日’까지(윤사월(閏四月)이 있음) 13개월(個月)동안 보고 듣고 행한 일들을 축일(逐日)로 적고 있다. 이 일기(日記)는 충제(冲齋)가 영천군수(永川郡守)에 임용(任用)된 갑술(甲戌)9월(月)14일(日)부터 기필(起筆)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일록(日錄)은 영천군수(永川郡守)에 부임한 11월(月)2일(日)부터 적고 있다.

충제(冲齋)의 일기(一己)로는 한원일기(翰苑日記), 당후일기(堂后日記), 승선시일기(承宣時日記), 신창영추단일기(新昌令推斷日記) 등 6책이 보물 261號로 지정되었거니와(위의 1,충제일기(冲齋日記) 참조) 이 책은 그때 누락된 것으로 여겨진다. 보물 261호로 지정된 한원일기(翰苑日記) 등 6책은 충제(冲齋)가 중앙관서(中央官署)에 재직시(在職時) 기록(記錄)한 것으로 중앙정부(中央官署)의 실상을 살필 수 있는 사료(史料)라면, 이 일기(日記)는 지방관(地方官) 재직시(在職時) 기록(記錄)한 것으로서 수령의 일상생활(日常生活)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15. 춘양일기(春陽日記) 보물(寶物)第896號

저자(著者) : 권벌(權撥) 저(著). 판종(版種) : 필사본(筆寫本).

연대(年代) : 중종(中宗)28(1533)~중종(中宗)29(1534) 수량(數量) : 1책(44장)

무계(無界). 반곽(半郭) 30.4×24.7cm. 선장(線裝). 저지(楮紙).

식기(識記)(후미(後尾)) : 세간사록(細看斯錄) 비선조지문(非先祖之文) 사시명하사(似是命下史) 축서일동정(逐日書動靜) 왕왕유선조추서점말자(往往有先祖追書點抹者) 기불성문리처(其不成文理處) 미면상하이역(未免上下移易) 역불감첩가일어운(亦不敢輒加一語云)(주필(朱筆))

이 책은 충제(冲齋)가 하사(下史)를 시켜 쓰인 일기(日記)로서, 중종(中宗)28年 계사(癸巳)(1533) 오월십팔일(五月十八日)부터 갑오(甲午)(1534) 삼월말(三月末)까지의 일기(日記)이다. 충제(冲齋)가 중종(中宗) 14年(1519) 을묘사화(乙卯土禍)때 파직되어 15년동안 야인(野人)으로 있다가 계사년(癸巳年)(1533)에 다시 복관(復官)되어 밀양부사(密陽府使)로 임명되었는데 이 일기는 밀양부사(密陽府使)로 임명되어 부임하던 일부터 임기동안 있었던 충제(冲齋)의 일상생활(日常生活)을 기록하고 있다. 글씨는 비교적 해정(楷正)하게 썼으며 충제(冲齋)가 주필(朱筆)로 문장(文章)을 수정 또는 추가(追加)한 부분이 상당수 발견된다. 일기(日記)의 문장(文章)은 충제(冲齋)자신의 말로 쓰여졌다. 주로 관리(官吏)들과의 수접(酬接)에 관한 기록으로 위의 영양일록(永陽日錄)(보물896호 12)과 함께 수령(守令)의 일상생활(日常生活)을 살필 수 있는 사료(史料)이다.

16. 심 경(心經) 보물(寶物)第896號

편저자(編著者) : 진덕수(眞德秀)(송(宋)) 저(著), 정민정(程敏政)(명(明)) 편(編).

판종(版種) : 무신자본(戊申字本). 간년(刊年) : [영조(英祖)조(朝)]

수량(數量) : 4권 2책

사주쌍변(四周雙邊). 반곽(半郭) 24.7×16.8cm. 유계(有界).

반엽(半葉) 10행(行) 17자(字). 내향이엽화문어미(內向二葉花紋魚尾).

규격(規格) : 35.2×23cm. 선장(線裝). 저지(楮紙).

어제충정공권별수진근사록서(御製忠定公權櫓袖珍近思錄序)(필사(筆寫))……여천조지십
유팔 년갑인(予踐阼之十有八年甲寅)(1794)중추야(仲秋也)/대광보국(大匡輔國)

송중대부영중추부사(崇(大夫領中樞府事) 신(臣) 채제공(蔡濟恭) 봉교근서(奉敎謹書)

심경부주서(心經附註序) : 홍치오년임자(弘治五年壬子)(1492)09 칠월망(七月望) 후학(後
學) 신안(新安) 정민정(程敏政) 근서(謹書)

발(跋) : 황명가정사십오년(皇明嘉靖四十五年) 세병인(歲丙寅)(1566) 맹추일진성(孟秋
日眞城) 이황(李滉) 근서(謹書).

인(印) : 「규장지보(奎章之寶)」 「홍제(弘濟)」 「승화장본(承華藏本)」 「
」

「심경(心經)」은 송영종(宋寧宗) 때의 문신 진덕수(眞德秀)가 심(心)에 대해 논(論)한
제현(諸賢)의 격언(格言)을 모으고 또 제유(諸儒)들의 정요(精要)한 논설(論說)을 모아
주해(註解)한 책으로 대지(大旨)는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다.

주희(朱熹)의 소찬(所撰)의 「근사록(近思錄)」과 함께 유학자(儒學者)의 필독서(必讀
書)였다.

이 책은 무신(戊申)자본(子本)으로, 조선제이십이대왕(朝鮮第二十二代王) 정조(正祖)가
재위 18년 되던 해인 갑인년(甲寅年)(1794)에 승화루장본(承華樓藏本)을 충제고택(仲齊
故宅)에 선사(宣賜)한 것이다. 정조(正祖)가 춘저(春邸)에 있을 때에 퇴계(退溪) 이황(李滉)
이 수정(手訂)한 수진심경(袖珍心經)을 퇴계(退溪)의 후손(後孫)을 통해 구견(求見)한
바가 있었고, 또 당시의 충정공권별후손가(忠定公權櫓後孫家)의 소장(所藏)의 충제수진
근사록(仲齊袖珍近思錄)(보물261호)과 영조(英祖)가 충제고택(仲齊故宅)에 특지(特旨)로
하사(下賜)한 「근사록(近思錄)」을 영남(嶺南)에 사신(使臣)으로 간 근신(近臣)을 통해
가져다 보고는 서문(序文)을 친제(親製)하여(어제충정공권별수진근사록서(御製忠定公權
櫓袖珍近思錄序))좌부승지(左副承旨)인 서영보(徐榮輔)에게 두벌을 쓰여 그 책들과 함께
충제고택(仲齊故宅)에 돌려주면서, 승화루장본(承華樓藏本)의 이 「심경(心經)」을 하사
(下賜)한 것이다. 이 「심경(心經)」을 하사(下賜)할 적에도 「어제충정공권별수진근사
록서(御製忠定公權櫓袖珍近思錄序)」를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채제공(蔡濟恭)을 시켜
쓰여 함께 주었는데, 이 책 권수(卷首)에 붙어 있다. 정조(正祖)는 「심경(心經)」과
「근사록(近思錄)」은 의례(義例)가 서로 표리(表裏)가 되는 책이고, 충정공권별(忠定公
權櫓)의 근사록(近思錄) 수진사적(袖珍事蹟)과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의 심경(心經)
수진사적(袖珍事蹟)이 또한 서로 비슷하다 하여 특별히 「심경(心經)」도 충제고택(仲齊
故宅)에 아울러 내린다고 서(序)의 소주(小註)에서 밝히고 있다.

<어제수진근사록서(御製袖珍近思錄序)>의 첫장 상단(上段)에 「규장지보(奎章之寶)」
란 새보(璽寶)가, <심경부주서(心經附註序)>첫장에 「홍제(弘濟)」 · 「승화장본(承華藏
本)」 등의 도장(圖章)이 찍혀있는데 「홍제(弘濟)」란 정조(正祖)의 자호(自號)이다.

이 책이 무신자본(戊申字本) 「심경(心經)」이기는 하나, 충제(沖齋) 수진근사록(袖珍
近思錄)과 연관이 깊고, 정조(正祖)가 채제공(蔡濟恭)에게 명하여<어제수진근사록서(御
製袖珍近思錄序)>를 쓰여 이 책과 함께 충제고택(仲齊故宅)에 선사(宣賜)한 그 유래(由

來)가 깊은 책이란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17. 근 사 록(近思錄) 보물(寶物)第896號

저자(著者) : 주희(朱熹)(송(宋)) · 여조겸(呂祖謙)(송(宋)) 찬(撰). 엽채(葉采)(송(宋))
집해(集解)

판종(版種) : 무신자본(戊申字本). 간년(刊年) : [현(顯)종(宗)~숙종년간(肅宗年間)]

수량(數量) : 14권 4책.

사주쌍변(四周雙邊), 반곽(半郭) 24.5×16.8cm. 유계(有界).

반엽(半葉) 10행(行) 17자(自). 주쌍행(註雙行). 내향이엽화문어미(內向二葉花紋魚尾).

규격(規格) : 35.7×23cm. 선장(線裝). 저지(楮紙).

어제충정공권벌수진근사록서(御製忠定公權機袖珍近思錄序) : ……여천조지십유팔년갑
인(予踐阼之十有八年甲寅)(1794)중추야(仲秋也)(정조(正祖))/규장각(奎章閣)

검교직각지제교(檢校直閣知製敎) 신(臣) 서영보(徐榮輔) 봉교근서(奉敎謹書).

근사록집해서(近思錄集解序) : 순우무신(淳 戊申)(1248) 장지일(長至日)() 건안(建安)
엽채(葉采) 근서(謹書)

인(印) : 「규장지보(奎章之寶)」 「춘궁(春宮)」 「선사지기(宣賜之記)」

내사(內賜)(표지인면(表紙寅面)) : 특지(特旨)/면사근사록일부우고판윤권벌육대손(面賜
近思 錄一部于故判尹權機六代孫) 정랑(正郎) 만(萬) 전치우고(傳致于故) / 가(家) 잉
(仍) /

명물사(命勿謝) 회(噫) 석연(昔年) / 중묘조상화연시(中廟朝賞花宴時) 유어어원(遺於御
苑) 이아(而我) / 성조지명명급자(聖祖指名命給者)

즉차서야(卽此書也) 금일람서흥감(今日覽書興感) 사서시의자(賜書 意者) 시서야(是書
也) 석연금일(昔年今日) 기개우연(其豈偶然) / 이역(而亦)

여사석일성사(予使昔日盛事) 불민어후(不泯於後) / 운이(云爾)

세병인(歲丙寅)(1764) 추구월(秋九月) 기망(既望)(16일) 좌승지(左承旨) 신(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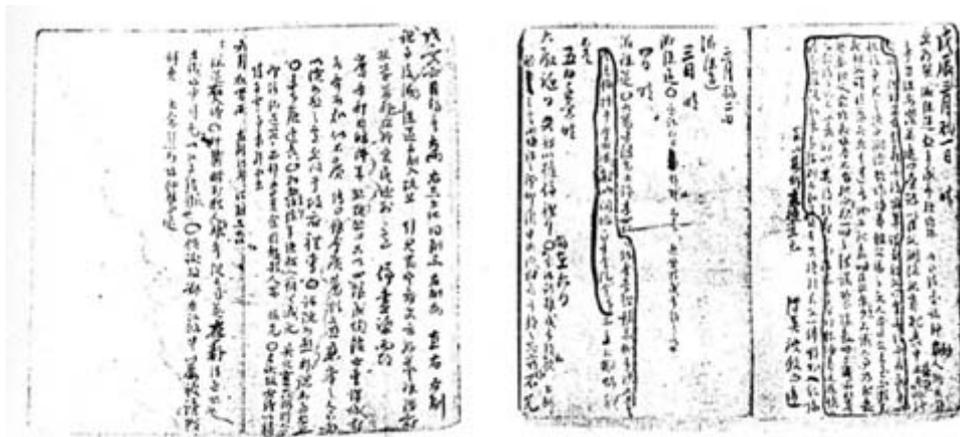
남태온(南泰溫) 봉(奉) / 교서(敎書)

이 「근사록(近思錄)」은 영조(英祖) 24년(1746)에 영조(英祖)가 충제(冲齋)의 6대손
(代孫) 권만(權萬)을 통하여 충제고택(仲齋故宅)에 선사(宣賜)한 것이다. 충제권벌(冲齋
權機)이 경회루상화연(慶會樓賞花宴) 때 잃은 수진본(袖珍本) 「근사록(近思錄)」을 궁인
(宮人)이 주위 중종(中宗)에게 바치자 중종(中宗)은 주인(主人)이 권벌(權機)일 것이라
하여 돌려주게 한 일이 있는데, 영조(英祖)는 성대(盛大)한 이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
지(特旨)로 무신자본(戊申字本) 「근사록(近思錄)」 1질(帙)을 하사(下賜)하면서 좌승지
(左承旨) 남태온(南泰溫)을 시켜 내사기(內賜記)를 쓰여 충제고택(仲齋故宅)에 전달하게
하였다. 그 뒤 정조(正祖)는 충제고택(仲齋故宅)에 소장(所藏)된 「충정공권벌수진근사
록(忠定公權機袖珍近思錄)」의 원본(原本)과 영조(英祖) 특지(特旨)로 선사(宣賜)한 이
책을 사신(使臣)을 통해 가져다 보고 서문(序文)을 친제(親製)하여(어제충정공권벌수진
근사록서(御製忠定公權機袖珍近思錄序)) 서영보(徐榮輔)를 시켜 두 벌을 쓰여서 수진본
(袖珍本) 및 본서(本書)와 함께 본가에 되돌려 주었는데, 그 어제서(御製序)가 당해본
(當該本)의 권수(卷首)에 붙어 있다. 그때에 정조(正祖)는 또 「근사록(近思錄)」과 「심
경(心經)」은 서로 표리(表裏)가 되는 책이고, 퇴계이황(退溪李滉)의 「심경(心經)」을

수진(袖珍)한 사적(事蹟)과 충제권벌(冲齋權機)이 「근사록(近思錄)」을 수진(袖珍)한 사적(事蹟)이 유사하다 하여 무신자본(戊申字本) 「심경(心經)」 1질(帙)도 선사(宣賜)하면서 채제공(蔡濟恭)에게 <어제수진근사록서(御製袖珍近思錄)>를 쓰여 역시 함께 충제고택(冲齋故宅)에 하사(下賜)하였다.

충제종손가(冲齋宗孫家) 소장(所藏)의 「근사록(近思錄)」으로는 3종(種)이 문화재(文化財)로 지정(指定)되었는데, 고려목판본(高麗木版本)으로 충제(冲齋)의 수진(袖珍)인 「근사록(近思錄)」은 보물 제262호로, 충제(冲齋)가 내사(內賜)받은 초주갑인자본(初鑄甲寅字本)과 본서(本書)는 보물 제896호로 각각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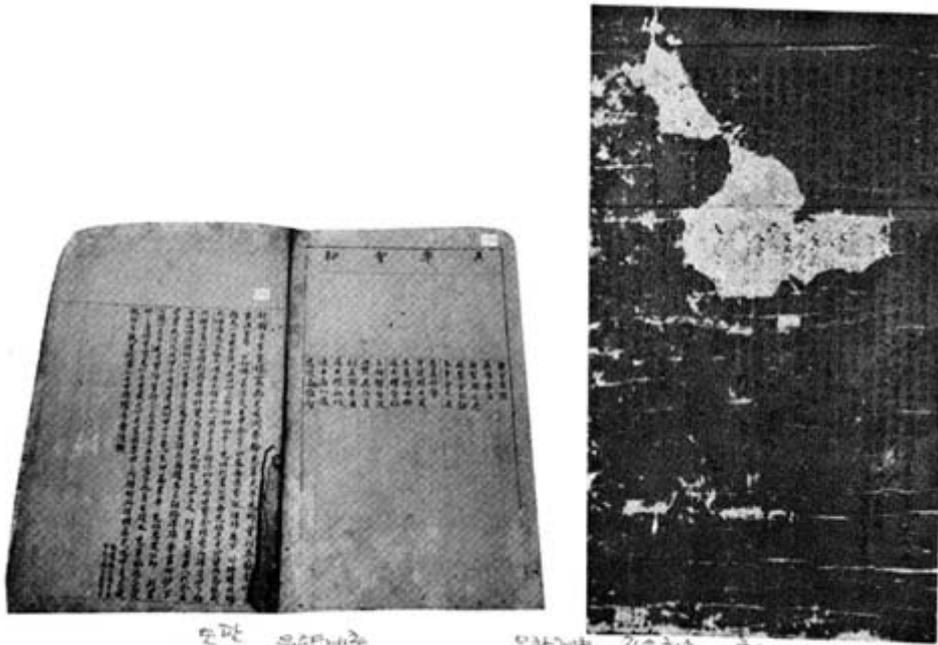
-고문서(古文書)(보물제901호)·유묵(遺墨)(보물제902호)은 다음 회에 수록(收錄) 예정임-



도판(圖版) 1. 충제일기(冲齋日記)(보물제261호). 한원일기(翰苑日記)(우(右))와 승선시일기(承宣時日記)(좌(左))



도판(圖版) 2. 근사록(近思錄)(보물제 26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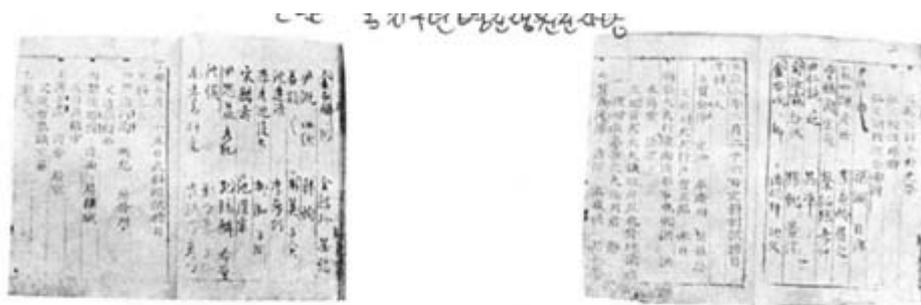
도판 3. 우향계축(友鄉契軸)(보물제896호)우향계축(友鄉契軸)의
진솔회축(眞率會軸)과 후식(後識).

도판(圖版) 3. 우향계축(友鄉契軸)(보물제896호)우향계축(友鄉契軸)의
진솔회축(眞率會軸)과 후식(後識)



圖版 4. 弘治九年丙辰生員進士榜

도판(圖版) 4. 홍치구년병진생원진사방(弘治九年丙辰生員進士榜)



圖版 5. 正德二年 別試 文·武·雜科榜目

도판(圖版) 5. 정덕이년(正德二年) 별시(別試) 문(文)·무(武)·잡과방목(雜科榜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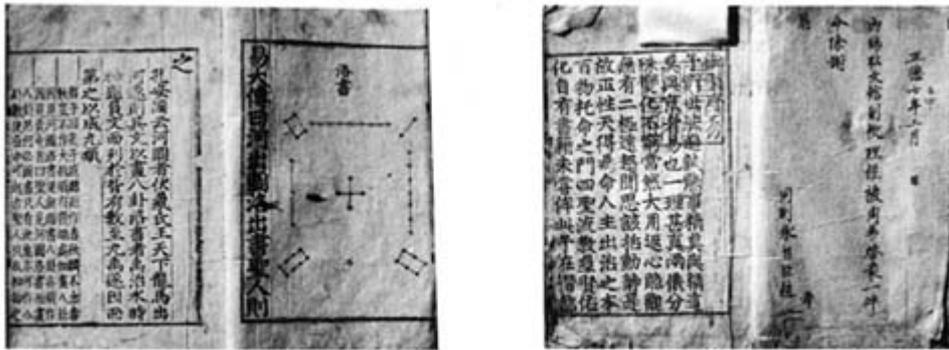


도판(圖版) 6. 광국원종공신록권(光國原從功臣錄券)



圖版 7. 新編古今事文類聚

도판(圖版) 7. 신편고금사문유취(新編古今事文類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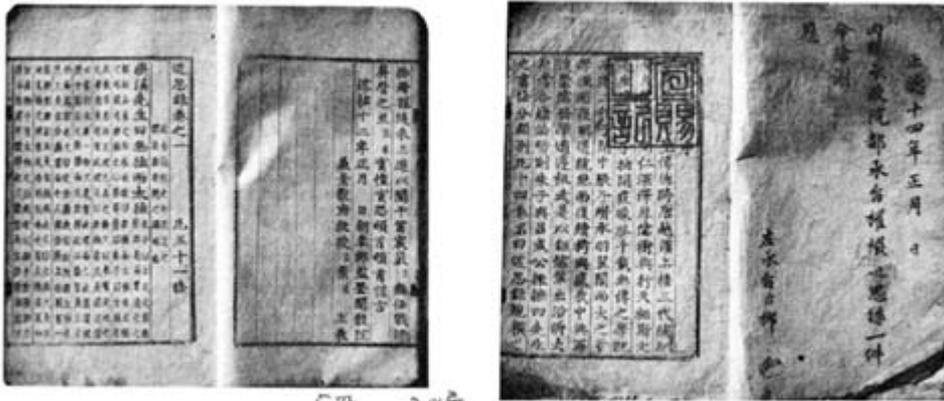
도판 8. 易學啓蒙要解

도판(圖版) 8. 역학계몽요해(易學啓蒙要解)



도판 9. 大學義補

도판(圖版) 9. 대학 강의보(大學 義補)



도판 근사록
圖版 10. 近思錄(보물제 896호)

도판(圖版) 10. 근사록(近思錄)(보물 제896호)



도판 주자대전
圖版 11. 朱子大全(보물 제 896호)

도판(圖版) 11. 주자대전(朱子大全)(보물 제896호)



도판 12. 劉向說苑(보물 제 896 호)

도판(圖版) 12. 유향설원(劉向設苑)(보물 제 896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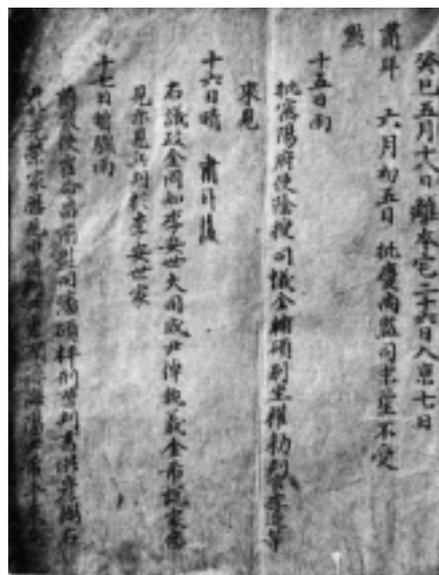
도판 13. 乙巳定難記(보물 제 896 호)

도판(圖版) 13. 을사정난기(보물 제 896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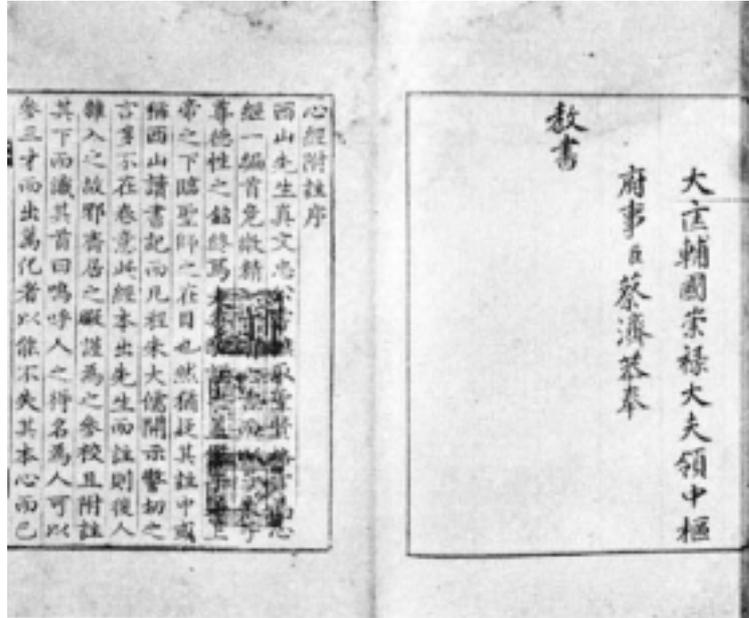
충제일기 영양일록
14. 冲齋日記(永陽日錄)(보물

도판(圖版) 14. 충제일기冲齋日記
(영양일록(永陽日錄))(보물제 89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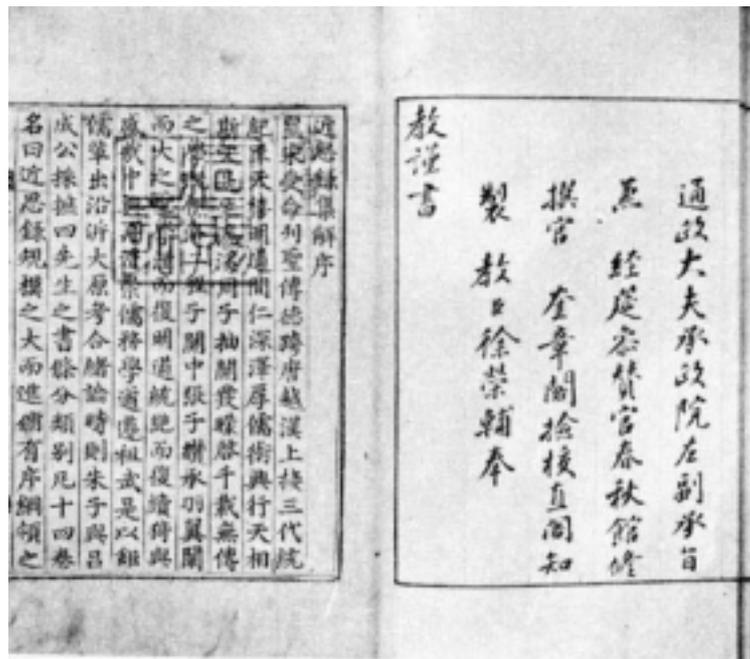
판 15. 春陽日記(보물제 896

도판(圖版) 15. 춘양일기(春陽日記)
(보물 제896호)



도판 16. 심경(心經)(보물제896호)

도판(圖版) 16. 심경(心經)(보물896호)



도판 근사록

圖版 17. 近思錄(보물 제 896 호)

도판(圖版) 17. 근사록(近思錄)(보물 제 896 호)